

옛날 사름이  
주원당에서 검질을 매다가  
겁비가 오란 담어염에 쉬는디.  
검질매단 혼 소나이놈이  
손에 붙은 진흑을 다듬안  
동즈석을 맨들안  
큰 담고망에 세우멍  
“늘랑 이디서  
넘어가는 사름  
넘어오는 사름신디  
인정이나 받아먹으멍 살라.”  
흐난.  
그 후 일년이 넘어가난.  
그 소나이놈이 아판.  
어딜 간 문점을 흐난.  
“손으로 뭉직은 죄,  
입으로 속절혼 죄,  
눈으로 본 죄라.” 흐니.  
심방을 청흐연 빌고,  
굿을 치난  
빙이 좋아지난.  
흐를날은 이 소나이놈이  
그딜 간  
그 담고망엘 보난  
아닐카. 그때 맹근 동즈석이  
세와둔냥 그냥 시연.  
“요게 뭔, 신령이 신곤?”  
흐연.  
똑기 그난  
피가 불끈 나난.

글주후론,  
넘어가는 사름이나  
넘어오는 사름이나  
이 질을 넘제 ᄔ민  
그냥은 넘질 못 ᄔ곡  
아못 신착을 ᄔ나  
벗엉 대끼나.  
혹은, 다림을 훈착 클령  
대끼나.  
.sendStatus ᄔ영  
돌새기라도 ᄔ나 죽엉  
이 자원당데레 대경  
인정을 걸어사  
그 질을 곱게 넘어가게 되니.  
시상 사름들이 ᄔ슬 ᄔ민  
“주원당 우망 ᄔ듯”이  
말을 ᄔ듯,  
이딜 당으로 위흡네다.

제일, 주손에 생기 맞은 날.

<한림읍 수원리 여무 71세 고봉아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605-606.